

단단한 뿌리

도서명 :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서은성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뿌리가 단단해야 한다. 뿌리부터 잘 자라야 건강한 나무가 된다.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그래야 줄기가 물을 빨아들여 꽃과 열매가 잘 자라게 되는 법이다. 하지만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작고 작은 씨앗이 땅에 싹을 틔워 그 속에 커다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짧은 시간만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나무가 비와 눈과 바람과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뿌리는 땅 속에 굳게 뻗어서 나무를 단단히 지탱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해 낸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지금의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 누구나 아는 유명한 분부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씨까지. 그 중에는 아이를 키우고 집안 일을 하는 안사람, 즉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있었다. 2019년까지 밝혀진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272명이다.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나라라는 이름 하나로 몸을 던졌다. 그 분들이 만세 운동을 하고 독립 운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만일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용감하고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 책에 나오는 여성 독립운동가 중 나의 마음을 크게 두드린 분은 박자혜 라는 독립 운동가였다. 숙명 여학교를 졸업 후 조산부 양성소에 들어가 일본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일본인 수간호사에게 정체 모를 조선인을 들여보냈다고 혼이 나고 일본 사람들의 비난과 괘시를 받으면서도 곳곳이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을 치료하고 돌보았다. 그러다 한 여성이 목숨이 끊기는 상황에서 명동 성당에 8시 이 필주 목사님이라는 말을 남긴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파고다 공원에서 3.1 운동 하는 시위대 환자들을 바라보며 강한 울분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된다. 일본에게 움츠러들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8시 명동성당으로 당당히 걸어간다. 그녀가 마음에 새긴 말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을 테다. 일본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테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실천했다.

후에 박자혜는 간호사 독립 운동단체인 '간우회'를 만들고 끝까지 독립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했다. 더불어 중국에서 독립운동가인 신채호 선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 남편과 함께 애국지사들을 위해 애쓰고 남편이 감옥에 갔을 때도 뒷바라지를 하며 아이를 다 키우는 것은 물론 남편이 감옥에서 안타깝게 죽은 후에도 독립운동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주체적인 모습을 가진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점에서 참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없으며 당당하게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지금의 나는 11살이고 초등학교이지만 내가 어른이라도 저런 용기와 단단한 신념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여자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으로써 당당히 독립운동을 뛰어난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박자혜는 독립 운동을 하면서 내내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두꺼운 솜 옷 하나 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 하나 보내 줄 돈이 없

어서 못 해주었다는 내용을 보고 진짜 마음이 아팠다.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채호 선생만큼이나 본인의 마음도 좁고 서러웠을 것이다. 게다가 둘째도 제대로 먹지 못해 죽게 되고 자신도 1943년 10월 16일 병고로 셋방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다. 나라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그 올곧은 정신으로 살아온 그 분들의 마지막이 너무 쓸쓸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지금도 많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께서 힘들게 살고 계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 분들의 발자국이 없었다면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그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는 점이다.

독립 운동가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독립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센 바람과 눈과 비를 맞으며 시간을 견디어 온 결과다. 깊은 땅에서 스스로 뿌리가 되어 건강한 자유의 나무를 키울 수 있게 희생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 일본이라는 잡초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영양분을 먹고 대한민국이라는 단단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그 감사함을 가슴에 새기는 일은 우리가 단연 해야 할 몫이다.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함을 잊지 말자.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선 모든 독립 운동가들께 단단한 뿌리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큰 나무 그늘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